



김진철 교수의 신나는 실전 골프

<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교수>

TV 볼 때 퍼터 들고 실전처럼

■ 좋은 퍼팅 하려면



▲ 슬라이스 라이스는 'S' 혹은 'F'로, 오른쪽은 '+' 내리막은 '-'로 표기해 두면 편리하다. 예를 들어 '5F+'는 5m 거리의 흑라인으로 오른쪽이라는 표기이다.

이러한 표기를 꾸준히 하면 경기 후 제대로 된 복습을 할 수 있고, 다음 라운딩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홀과 떨어진 거리, 라이 상태 등을 함께 기입하면 자신의 퍼팅 성향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3. 집에서 골프경기를 시청할 때 일어서서 보는 것도 기술향상에 도움된다.

TV로 골프경기를 보는 시선의 높이에 따라 실전감각을 익히는 정도가 다르다. 먼저 시선이 TV보다 아래인 경우로 누워서 보게되면 대체적으로 승부의 흐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다. TV와 눈높이가 같은 앉아서 보는 경우는 누워서 시청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릴을 느끼기는 한다.